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예수님의 은둔 I

(요 11:45 - 53)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은 11장까지를 ‘표적의 책(Book of signs)’이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므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21장에는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시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며,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수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 모든 일을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는 수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백성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함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면서도 한편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요 19:6)라고 외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55절을 보면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유월절 당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몸도 씻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며 유월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은 모여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 만한데 안 오신다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56절).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들일까 하여 예수가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훌륭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도운 자들도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가 아닌가를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서 어떤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식, 그리스도의 의도 사랑도 없는 행사,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모든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수님 없이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가 간다면 육신만 피곤할 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백성들을 미련하고 불쌍하다고 천대하기 전에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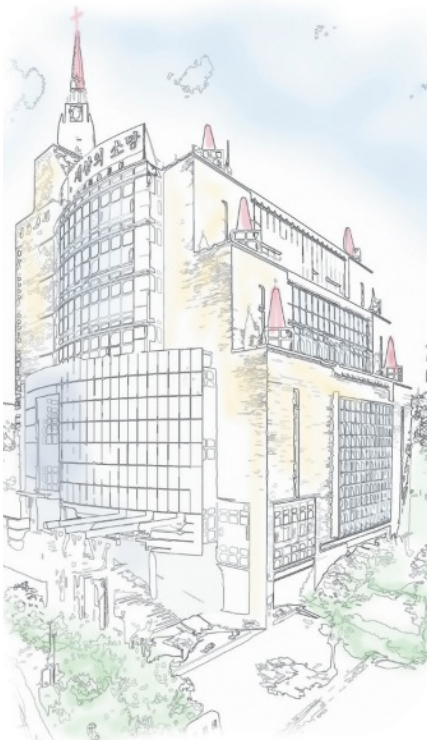
57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먼저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지도자들의 적개심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린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율법만 자기들의 생명인 줄로 알고 치유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과거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관해서는 터무니 없는 자세로 방관하거나 혹은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마치 꺼풀만 있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생명이 떠난 시체와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패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강박해진 인간의 심성, 좁아질 대로 좁아진 마음과 편견, 아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 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들의 명분만을 중요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그 옛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이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온유함의 힘



손달익 담임목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가 1572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서 설교자는 “여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누워 있다.”고 녹스를 추모했다. 그는 실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위대한 용기를 지닌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녹스에게는 이런 강인함과 저돌적인 추진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군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루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의 지도자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도해 줄 믿음과 능력을 지닌 한 사람이 있다.”고 녹스를 지명했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훗날 회고했다. 이런 수줍음과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온유한 마음이 그의 근본 바탕에 깔려 있었다.

토머스 칼라일은 “모든 신앙적 위인들의 특성은 성실성(integrity)이다.”라면서 성실성이란 세심함과 깊은 배려가 있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성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자주 강력함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 그것은 강력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관건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쓰신다는 의미이다. 미래 사회

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미래 역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온유한 자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내일을 품고 사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속사람을 온유하게 길들이기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심은 그가 자기 아집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용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함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 12:3)고 하며 모세의 지도력이 그의 온유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한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이런 온유함이 자기를 비우고 다스려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한 것이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어서 부드러운면서도 강인하고 예절 바르면서도 악을 허용치 않는 담대함을 포용한다.

그러나 온유함은 인간 본성을 갖고 닦아서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다. 갈 5:23은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속성이 온유함이 진정한 온유함인 것이다. 창 41:38은 온유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는 본래적 천성과 관계없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스리(S. Gurthrie)는 완강한 고집과 힘의 남용으로 자기 과시에 인간 힘을 쓰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별 볼일 없이 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중 야만인이라 불렀다.

강인함과 과시하려는 야만적 습성을 버리고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올 한 해 미래를 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023년 청지기 수련회

2023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8일(주), 1월 15일(주) 두 주간 찬양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2023년 서울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청지기로 세움 받기를 소원합니다.

\* 일정 및 강사 안내\*

1월 8일(주일) 헌신 훈련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목사)

1월 15일(주일) 영성훈련  
진희근 목사 (일산승리교회 원로목사)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목사)  
헌신 훈련



진희근 목사  
(일산승리교회 원로목사)  
영성훈련

###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3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이 계속된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첫째 주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비전 2030 후원자

손달익·박영숙(5구좌) 오정수·이영희(5구좌) 임상현·서희숙(5구좌) 이강인·허숙(2구좌) 김혜연·박은영(2구좌) 정금희(1/2구좌) 채교천(2구좌) 채승호(2구좌) 노제현(5구좌) 임대중·남재은(1구좌)

#### ■ 한가정한 선교사 후원자

손달익·박영숙(1구좌) 오정수·이영희(1구좌) 임상현·서희숙(1구좌) 김혜연·박은영(1구좌) 정금희(1/2구좌) 채교천(1/2구좌) 채승호(1/2구좌) 주화인(1구좌) 노제현(1구좌) 최죽희(1/2구좌) 박동우·백승경(1/2구좌) 임하린(청소년구좌) 임하람(청소년구좌) 임하울(청소년구좌)

####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손달익·박영숙(1구좌) 오정수·이영희(1구좌) 임상현·서희숙(1구좌) 이강인·허숙(1구좌) 김혜연·박은영(1구좌) 정금희(1/2구좌) 채교천(1/2구좌) 채승호(1/2구좌) 노제현(1구좌)

## 2023년 변화되는 청년부에 초대합니다



장윤기 안수집사  
(청년부 부장)

할렐루야~ 서울교회 성도님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여러분!

청년부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회의 3대 사명인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에 가장 잘 맞는 부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성되기 위

해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인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고 구제 하는데 앞장서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까지는 청년 1부와 청년 2부로 분리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는 교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젊은 에너지와 성숙한 지혜를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청년부로 통합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8일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청년부 자체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3부 예배로 통합하여 본당 2층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통합은 청년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지며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사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자



2011년 청년부 헌신 예배

칫 어른들만의 예배로 오해할 수 있는 본당 예배에 청년들이 함께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활력을 불어 넣어 교회의 변화에 청년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길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변해야만 산다는 말씀과 청년부가 부흥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되지만 그것은 아마도 서울교회의 설립 취지인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통합된 예배로 청년부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 믿으며 2023

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 새롭게 변화될 청년부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하며 청년들과 함께 할 3부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잠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주위에 있나요? 혹시 청년 자녀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나요? 봉사 부서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청년부에 참석하길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3대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변화를 꿈꾸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의 열린 문



소준 성도  
(청년부 회장)

할렐루야!

새로운 2023년과 새로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청년부는 기존의 웨민홀에서 하던 청년부 예배를 젊은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본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연령대의 지체들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길 기대합니다!

새로 시작하려 하는 젊은이 예배는 기존의 대 예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예배의 형식은 유지하되,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청년들에게 가까워지자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크게 바뀌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교단에서 설교를 전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같은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과 예배 전에 찬양팀의 찬양이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청년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하던 팀모임은 유지하고 지속적인 양육 모임으로 청년부원들의 리더들부터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방법을 배워 이후 사역과 팀모임이 말씀으로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공동체적 성장입니다. 학업, 군복무, 취업 준비, 회사생활로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즐겁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민 뿐만 아니라 신앙적 고민을 나누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6)라는 말씀에 따라 같이 주님의 길을 가는 청년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이니 기도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서슴없이 청년부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세요!

##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신준하 성도 (사랑부 회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사랑부의 신준하입니다. 저를 사랑부 회장으로 당선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사랑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샬론찬 양대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플 때 교회에 나오지 못했으나 그런 저를 낮게 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게 해 주셨기에 저는 더욱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저를 성경 골든벨에서 1등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을 하더라도 사랑부 회장으로써 자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만하는 자를 증오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내년 겨울성경학교 골든벨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하는 자만 증오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사랑부 회장으로써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해기도

조한나 은퇴협동권사(시인, 3교구)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는 아침  
큰 해를 받들어  
바다로 산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더운 김이  
펄펄 끓는 선흥빛 희망을 풀어 놓는다  
떠오르는 빛이 이 땅 어느 곳이나  
비추이게 하소서

삶의 주머니 속에 결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새해엔 심령 깊이  
성령의 심지를 돌위  
새 불을 켜게 하소서

꽃 앞에 서듯이  
누구에게나 미소를 나눠 주게 하소서

등불 들고 꽃씨를 심는  
일꾼 되게 하소서.

## 안디옥열방교회 사역보고

김종일 선교사



안디옥열방교회는 2007년 설립되어 의정부를 중심으로 양주 및 동두천, 송우리 및 포천까지를 포함해서 국내 튀르크 언어권 무슬림 체류자 중에서도 근로자들과 난민 신청자들을 전담하는 선교 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 땅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어서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체험 등 수많은 ‘한국화’ 과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는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조차 발견됩니다. 더욱이 이들에게 한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친 비어와 폭언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지쳐만 가고 어렵게 들어온 한국을 떠나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이 일주일 가운데 6일을 거의 쉬

지 않고 일하고 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하루일 테지만 적지 않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채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냥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명절날 선물을 받으려 함이나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가족 같은 그 누군가가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진 지역 교회를 더욱 발굴하고 상호 연합 사역을 통해 좀 더 전문적으로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사역’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세례를 받은 후에 현재까지 양육 받는 현지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 이양을 위해서 리더십 훈련과 본국으로 돌아간 우리 교회 출신 형제들을 그곳의 현지 사역자들에게 연결하는 등 해외 현지 선교자와의 선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송구영신예배로  
시작하는 2023년

ENTES IN CORDIBUS



- ① ② 송구영신예배 전경
- ③ 당회원과 교역자들의 신년인사
- ④ 홍창훈 스테반회장의 대표기도
- ⑤ 장호림 권사회장의 대표기도
- ⑥ 소준 청년부회장의 대표기도
- ⑦ 오선아 초등부회장의 대표기도
- ⑧ ⑨ ⑩ ⑪ ⑫ 송구영신예배 전에 열린 송년음악회

(사진 : 정승균 안수집사)



- ⑬ ⑭ 지난주일 1·11·13부에 가  
진 성찬예식

(사진 : 정승균 안수집사)

스데반회 헌신예배

스데반회(회장 : 홍창훈 안수집사) 헌신예배가 1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이날 강사로는 강영안 교수(서강대 명예교수)가 선다. 스데반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영안 교수 (서강대 명예교수)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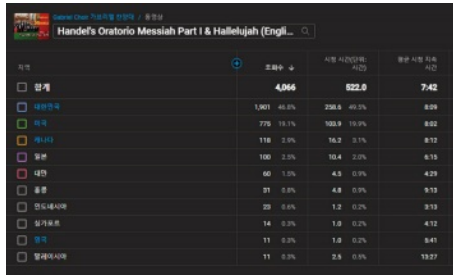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월9일	월	창 1-3	
1월10일	화	창 4-7	
1월11일	수	창 8-10	
1월12일	목	창 11-14	
1월13일	금	창 15-18	
1월14일	토	창 19-20	
1월15일	주일	창 21-23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월9일	월	창 1-7	
1월10일	화	창 8-13	
1월11일	수	창 14-19	
1월12일	목	창 20-24	
1월13일	금	창 25-30	
1월14일	토	창 31-35	
1월15일	주일	창 36-41	

가브리엘찬양대 성탄절칸타타 유튜브 동영상 5,500뷰 넘겨



작년 가브리엘찬양대(대장 : 이강인 장로)의 성탄절 절기찬양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유튜브 영상이 3주 만에 5,500뷰를 넘겼다.

시청 분포를 보면 한국이 50%, 미국이 20% 그외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영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에서 시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브리엘찬양대 유튜브는 가브리엘찬양대 대원인 정동식 안수집사와 김문영 집사 내외가 기쁜 마음으로 카메라를 따로 설치하여 교회예배 영상과 같이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봉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올려진 영상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의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전도에 더욱 사용되기를 바란다.

동 정

- 식사 제공 : 6교구 임상헌 은퇴장로·서희숙 권사 자녀 임경민 임규연 임연주 (그동안 장로로서 귀한 쓰임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생일카드 제작

서울교회 디자인 팀(팀장 : 김금재 안수집사)은 2023년을 맞아 성도들의 생일에 배포할 생일카드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번 카드는 고민정 집사가 디자인하였으며 예년과는 달리 3종을 디자인하여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구간사들은 생일 맞이한 성도들에게 연명별 혹은 가족별로 다른 카드를 발송하시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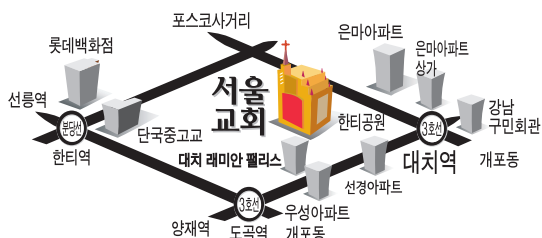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 사람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2. 2023년도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고 충성된 천국일군으로 구비되는 청지기 수련회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빨리 벗어나게 도우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한반도에 복음화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분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